

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

사 건 2025드단22521 이혼 등

원 고 죄 남 회

피 고 김 경 랑

지난 2026. 01. 19.경 이 사건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, 다음과 같은 의견을
개진합니다.

다 음

1. 원고는 추가 가사조사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.

원고는 지난 가사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과 사건의 경과,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사정 등이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에 원고는 본인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사조사를 마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원고는 미처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아쉬움이 없도록 추가적인 가사조사 진행을 요청드립니다.

2. 원고가 희망하는 가사조사 일정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원고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20일 이후 평일에는 연차

를 사용하여 가사조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바, 매달 20일 이후 중 하루를
가사조사기일로 지정하여 주셔서 원고가 충분히 혼인 중 사실관계를 진술할
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주시길 희망합니다.

아울러, 지난 조사 당일 원고에게는 먼저 귀가하도록 안내된 한편, 피고는 원고 귀가 이후에도 조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바, 피고에게 별도로 사건과 관련한 설명이나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원고가 충분히 진술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겠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. 이에 향후 조사 과정에서는
②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를, ③ 당사자 간 분리조사를 희망합니다.

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피고의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 등으로 사실상 파탄에 이른바, 가사소송 특성상 혼인 중 이러한 상대의 유책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힘든 만큼 가사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원고는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혼인파탄사유 등을 진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가사조사에 임하고자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6. 01. 20.

원고의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재현

담당변호사 이민주

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귀중